밀레니엄 베이비들이 뜬다 | 연예계 변화 키워드 3가지 〈下〉

SNS…마이싸이더…페어플레이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

1990년~2000년대에 태어나 '밀레니엄 세대'로 불리는 이들이 연예계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SNS로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가수 아이유, 당당히 교제 사실을 공개한 가수 던(왼쪽)·현아 커플, 시청자 문제제기로 순위 조작이 드러나 구속된 엠넷 '프로듀스X101' 안준영 PD.(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뉴시스

실시간 댓글·동영상 채팅 통해 대중과 거리 좁혀
무분별한 루머·악플 테러 등은 사회문제로 확산
밀레니엄 세대 독립성 강조…'나의 행복'에 초점
공정한 경쟁 추구…노예계약·불공정 계약 '적폐'

'밀레니엄 베이비' 2000년생들이 스무 살을 맞기까지 연예계도 빠르게 변했다. TV로만 접했던 연예인과 '채팅 친구'가 되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던 연예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변화를 이끄는 주역 역시 1990년대와 2000년 초반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다. 'SNS'와 '독립성', '권리'는 이들의 성장과 함께 생성된 연예계의 새로운 키워드이다.

●'디지털 유목민' 세대의 힘…SNS

2010년대 연예계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SNS'일 것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등장해 빠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는 SNS와 함께 자라났다. 실제로 미디어회사 나스미디어의 '2018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보면 "10대와 20대의 SNS 이용률이 각각 87.8%와 87.5%"이다.

이처럼 '대세'가 된 SNS가 연예계에 가져온 변화 중 하나는 한껏 좁혀진 스타와 대중의 거리다. 가수 아이유, 현아 등 많은 아이돌 가수들은 SNS의 댓글·실시간 영상 채팅 기능을 통해 팬들과 직접 대화하며 소통한다. SNS는 이들의 새로운 '무대'가 되기도 한다. 개그맨 유세윤, 유병재와 연기자 이미도 등은 웃긴 사진과 재치 있는 글을 시리즈물로 올려 주목 받았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특성 때문에 SNS는 '연예계 루머'의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무분별한 '악플'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동안 '악플 테러'에 시달린 가수 설리와 구하라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 "악플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했다.

●'나'를 드러내자!…독립성

'마이싸이더'. 나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밀레니엄 세대'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작년 전국 만 15~3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밀레니엄·Z세대 트렌드 키워드 검증 조사'에서 "나는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0.6%였다.

"나의 행복"을 말하는 연예인들은 '공개 열애'에도 주저함이 없다. 과거 전속계약서에 '연애 금지' 조항이 있을 정도로 금기시됐지만, 최근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과 트와이스 지효, 슈퍼주니어 김희철과 트와이스 모모, 연기자 김보라와 조병규 등이 "솔직하고 싶다"며 자신들의 사랑을 공개했다. 가수 현아와 던은 2018년 "사실무근"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을 뒤집기까지 했다. "나를 속이기 싫다"는 이유에서였다.

콘텐츠 제작현장에서는 나이나 경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김향기(20), 김새론(20) 등 비교적 어린 나이의 연기자들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덕분이다. 2003년 데뷔한 연기자 정다빈(20)은 스포츠동아 인터뷰에서 "최근 촬영현장에선 연출자의 지도를 따르는 게 아닌, '내가 만족하는 연기'를 하라고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하게 '페어플레이'…권리

김난도 서울대 교수팀이 2020년대 소비트렌드를 분석한 책 '트렌드코리아 2020'은 '페어플레이어'를 내세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으로 비난받은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사태도 10~20대가 주를 이루는 시청자가 중심이 돼 관련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한 경쟁과 그에 합당한 성과를 바라는 시선이 바탕에 있었다.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밤샘촬영'을 당연시했던 드라마 촬영현장은 "주 52시간 근무"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아이돌 스타들 사이에서 종종 문제가 된 '노예계약'도 사라지고 있다. 2017년 10~20대 연예인지망생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하는 '표준계약서가 시행 중인 것도 연예계 안팎의 꾸준한 목소리가 일군 변화의 시작이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할리우드 편견 깬 '한국계 여배우' 아콰피나

여성 성기 노래하다 직장서 잘린 래퍼
영화 진출 4년만에 '골든글로브' 수상

155cm의 '작은 거인' 아콰피나(32)가 할리우드 '파워맨'으로 우뚝 섰다. 미국 골든글로브의 77년 역사상 아시안 여배우로는 처음으로 올해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그가 할리우드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인종의 장벽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이 됐다.

아콰피나는 최근 2~3년 사이 무섭게 성장한 배우다. 미국 할리우드 리포트가 최근 선정한 '2019년 엔터테인먼트 우먼파워 100'에 니콜 키드먼, '겨울왕국'의 제니퍼 리 감독 등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을 정도다. 이미 2018년 여름 할리우드를 강타한 아시안 이야기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통해 할리우드에 '아시안 물결'을 몰고 온 주역이기도 하다.

●'김치찌개'가 예명이 될 뻔

6일(한국시간) 그에게 골든글로브상을 안겨준 작품은 '더 페어웰'. 중국계 미국인 손녀가 아픈 할머니를 찾아 중국으로 향하는 이야기다. 실제 아콰피나의 사연과도 겹쳐 더욱 눈길을 모은다. 미국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4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아버지는 뉴욕 인근 플러싱에서 중국 식당을 운영하면서 딸을 키웠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쥔 그는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렸다. 그는 "나를 길러준 가장 친한 친구인 할머니, 그리고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에게 감사하다"면서 "아빠! 내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했었지?"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아콰피나

재치와 유머는 아콰피나의 팬덤을 두텁게 하는 배경이다. '엔터테인먼트 우먼파워 100' 인터뷰에서 그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답했다. 본명이 '노라 럼'인 그는 고교 시절 예명을 고민하다 '김치찌개' 등을 후보로 고민한 끝에 생수 브랜드 '아쿠아피나'를 보고 '아콰피나'로 지었다.

●래퍼로 출발, 영화 출연 4년 만의 성과

시작은 래퍼였다. 출판사에 다니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관심을 둔 랩을 발표해온 그는 2012년 노래 '마이 배지'(My Vag·여성 성기를 일컫는 비속어)가 문제가 돼 해고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TV드라마를 거쳐 2016년 영화 '나쁜 이웃들2'로 스크린에 나섰다.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CNN 등 현지 언론은 "아시안 배우가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는 1956년 일본의 쿄 마치코 이후 아콰피나까지 불과 6명뿐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콰피나의 성취는 할리우드의 아시안, 특히 한국계 배우들의 약진으로도 읽힌다. 지난해 캐나다 출신의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가 드라마 '킬링이브'로 골든글로브 TV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향후 할리우드 아시안의 물결이 견고해질 것이란 기대도 쌓인다. 아콰피나의 차기작은 마블스튜디오가 아시안 영웅을 내세우는 '샹치 앤 더 레전드 오브 더 텐 링스'이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불합리한 수익배분" vs "당초 합의안 번복"

〈외주제작사〉 〈KBS〉

'동백꽃 필 무렵' 저작재산권 분쟁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입장차 커
해외판매 커지면서 저작권 문제로

20%대 시청률로 신드롬급 인기를 끈 지난해 화제작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이 뒤늦게 홍역을 앓고 있다.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와 방송사 KBS가 저작재산권을 놓고 법적분쟁을 시작할 조짐이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 저작재산권에 대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몰린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통상적으로 방송사가 독점하는 저작재산권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KBS는 "제작사가 당초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갈등의 핵심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속 저작권법 9조 조항에 대한 해석차이다.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라마를 집필한 임상춘 작가가 소속된 팬엔터테인먼트는 "대본 기획, 드라마 개발, 제작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해 저작권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저작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5~10%가량을 나눠 가진 관행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KBS 2TV '동백꽃 필 무렵'

제작사 관계자들은 "방송사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갑'의 위치인 방송사가 저작재산권을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져간 경우는 '별에서 온 그대'와 '겨울연가' 등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것이다. 작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불합리한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번 분쟁에 대해 "빠르게 달라지는 드라마 시장의 수익 구조를 반영하는 기준이 새롭게 정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해외판매·VOD 수익 등 저작권 소유에 따른 수익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의 '관행'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4

정민당, 송하예 음원 사재기 영상 공개

송하예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이 잇따라 반발하는 가운데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는 8일 가수 송하예의 소속사 더하기미디어가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측은 이날 2019년 5월25일 홍보대행사 앤스타컴퍼니 관계자가 컴퓨터 2대를 이용해 송하예의 곡 '니 소식'을 연속으로 재생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정민당은 이 영상을 토대로 더하기미디어와 앤스타컴퍼니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하예 측은 "사재기 작업을 한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김건모 "여성 A씨 명예훼손 혐의 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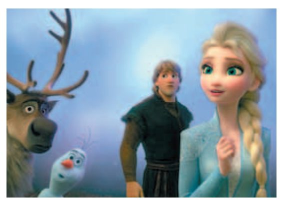
김건모

가수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고소했다. 8일 소속사 건음기획 측에 따르면 13년 전 김건모는 폭행 피해자라는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하 "클럽 시비, 직접적 관련은 없다"

연기자 동하가 최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벌어진 폭행 시비와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8일 해명했다. 동하는 5일 오전 한 클럽에서 다른 일행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앤드 측은 "동하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친구와 함께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 주변 취객이 밀치자 문제가 커질까 자리를 떴다"고 밝혔다.

'겨울왕국2', 역대 외화 흥행 2위 차지



겨울왕국2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역대 국내 개봉 외화 중 흥행 2위를 차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 2'는 8일 현재 누적관객 1362만7118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의 1348만6963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로써 지난해 개봉한 '어벤져스:엔드게임'에 이어 외화 중 2위,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6위로 상승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